

# 5강 싸움 호랑이, 안방서 배수진

## T 타이거즈 전망대

이번주 한화·SK와 7연전  
마운드 고민 속 더블헤더 '숙제'  
하위팀 발판 상위권 도약 기회  
선수 운용 등 벤치역할 기대

### ■ KBO 중간순위 (5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23	76	4	43	0.0
2	KT	124	70	1	53	8
3	키움	130	72	1	57	9
4	LG	126	68	3	55	10
5	두산	125	66	4	55	11
6	KIA	121	64	0	57	13
7	롯데	122	63	1	58	14
8	삼성	125	54	3	68	23.5
9	SK	126	42	1	83	37
10	한화	124	38	2	84	39.5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에 '짐'이 하나 늘었다. 더블헤더 편성으로 7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지난주 키움전 3연승 뒤 두산전 3연패로 전국과 지옥을 오갔다. '5강 라이벌'인 두산에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두 경기 차로 멀어지게 됐고, 7위 롯데에 1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브룩스의 이탈 속 양현종, 임기영, 이민우의 이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새로운 한 주 '더블헤더'라는 난관을 만났다.

KIA는 이번 주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를 상대한다. 올 시즌 각각 9승 2패, 8승 5패로 앞서 있는 하위권 두 팀과의 대결이지만 7일 더블헤더가 편성되면서 마운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IA는 지난주 임기영을 시작으로 가봉-김현수-양현종-이민우 다시 임기영으로 6연전을 소화했다.

가봉이 7이닝 2실점을 책임지면서 승리투수가 됐지만 다른 선발진의 이닝은 턱없이 부족했다.

KIA는 9월 29일 임기영이 4.1이닝 3실점으로 일찍 내려왔지만, 타선이 폭발하면서 10-6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가봉에 이어 1일 김현수의 '깜짝 호투'로 마운드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았다.

선발 비상 속 첫 선발 등판에 나서 고졸 2년 차 김현수는 키움 타선을 5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투구수가 72개에 불과했지만 1군 첫 선발 등판이었던 만큼 김현수의 등판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경기가 3-1 승리로 끝나면서 김현수는 감독의 첫승을 신고했다.

김현수가 팀을 단독 5위로 올려놓지만 이후 세 경기에서 선발진이 자존심을 구겼다.

양현종이 5이닝 6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이민우는 1이닝 3실점에서 멈췄다. 화요일에 이어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임기영은 4이닝 4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5위를 놓고 벌인 두산과의 중요한 경기였지만 3명의 선발은 경우 10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세 경기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11.7까지 치솟았다.

양현종이 브룩스를 대신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10월 시작이 좋지 못했다. 한 번에 6실점을 하면서 양현종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4.68(전체 15위)까지 상승했고, 승률은 0.529로 내려왔다.

가봉의 어깨가 무겁다. 6일에 이어 11일 경기까지 가봉이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한다.

최근 흐름은 좋다. 8월 26일 두산전 승리 이후 패배 없이 6경기에서 4승을 챙겼다. 또 가봉이 나온 최근 6경기에서 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벤치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규리그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

위기의 마운드는 빠른 템포와 물량 공세로 붙잡아야 한다. 무더진 타선에는 기동력을 더해야 한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대에 머문 나지완과 유민상의 배치도 고민이다.

두산전 3연패로 치명상을 입은 KIA가 안방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막판 스퍼트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브룩스·최원준 9월 MVP 후보

브룩스, 4연승·방어율 0.95

최원준, 타율 0.374·득점 공동 1위

루친스키·양의지 등 총 6명 후보

기자단·팬 투표 합산 11일 발표



브룩스

최원준

KIA 타이거즈의 브룩스와 최원준이 KBO 리그 9월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5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9월 MVP 후보를 발표했다. 브룩스, 최원준과 함께 루친스키·양의지·박민우(이상 NC), 라모스(LG) 등 6명이 후보다.

브룩스는 KIA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줬다. 4경기에 나와 28.1이닝을 소화했고, 자책점은 3점으로 묶어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0.95)을 기록했다.

가족의 교통사고로 지난 22일 귀국길에 올랐지만 4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루친스키와 9월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닝당 출루허용률도 0.64로 묶어 전체 1위다.

NC 루친스키는 9월 5경기에서 4승을 더하는 등

리그 다승부문 1위(18승)에 올라왔다.

또 루친스키는 9월 31.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36탈삼진을 속이내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평균자책점은 2.27를 기록했다.

KIA 최원준도 쟁쟁한 후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원준은 9월 한 달 0.374의 타율로 5위에 자리했다. 0.452의 출루율(2위)로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했다. 25차례 홈에 들어와 월간 최다 득점 공

동 1위에 올랐다.

'미스터 올스타' 양의지는 9월 MVP에도 도전한다. 양의지는 9월 18일 문학 SK전에서 만루포를 앞세워 7타점을 기록하는 등 9월 한 달 가장 많은 32타점을 쏟아냈다. 9월 20일 사직 롯데전 멀티포 포함 홈런 2위(8개), 장타율(0.673) 1위다.

박민우는 '4할 타자'로 명함을 내밀었다.

26경기에 나온 박민우는 100타수 41안타로 유일하게 4할 타율(0.410)과 9월 최다 안타를 기록했다. 박민우는 출루율 1위 (0.475), 득점 4위(20득점)에도 올랐다.

라모스는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MVP에도 도전한다. 라모스는 9월 리그에서 가장 많은 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냈다. 그는 현재 38홈런(리그 2위)으로 LG 소속 선수 최초 4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9월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SOL(솔)'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 점수를 합산해 11일 발표된다.

MVP에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출신 중학교에는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득점왕 손흥민' 이젠 꿈 아니다

EPL 맨유전 2골 1도움...한국인 첫 유럽 5대리그 통산 100득점

리그 4경기 6골 득점 공동 1위...울 대표팀 소집 없어 레이스 '순풍'

'차별'을 넘어 아시아 축구 사상 역대 최고의 별로 떠오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아시아인 최초 '빅리그 득점왕'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5일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멀티골(2골)을 폭발하며 토트넘의 6-1 대승에 앞장섰다.

헬스케어 부상에 불과 일주일 만에 '깜짝' 복귀한 그는 이날 두 골로 한국과 아시아 축구사를 또 한 번 다시 썼다.

토트넘 입단 전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손흥민은 유럽 빅리그에서 총 98골을 기록, 차범근과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

전반 7분 2-1 역전 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전반 37분 4-1을 만드는 추가 골까지 올리며 자신의 유럽 빅리그(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이탈리아 세리에A·독일 분데스리가) 통산 100골을 채웠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3년 동안 분데스리가 73경기에서 20골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레버쿠젠으로 옮겨 62경기에서 21골을 사냥했다.



이후 2015년 8월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64경기에서 59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해 11월 차범근이 쓴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 골을 터뜨려 개인 통산 123골을 쌓았다. 차범근이 기록 중이던 아시아인 최다 121골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이날 이 기록도 141골로 늘렸다.

손흥민이 세운 대기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서 한 시즌 10골-10도움 이상을 올렸다.

올 시즌 2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EPL에서 한 경기 4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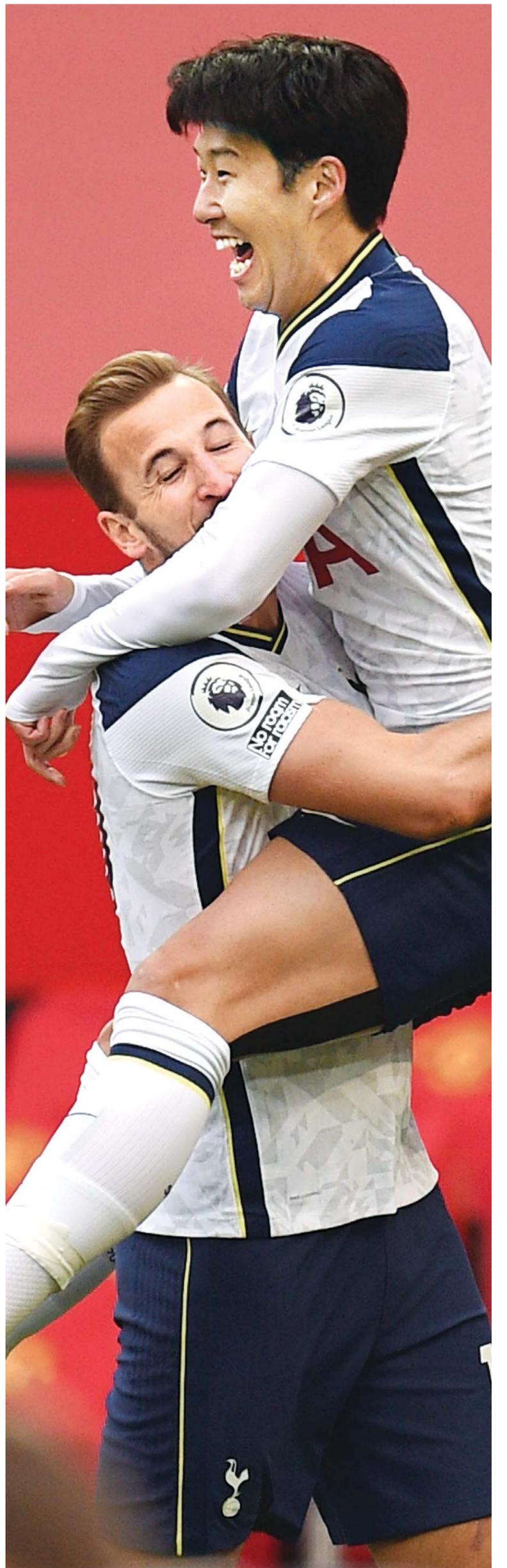
현세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는 손흥민은 이제, '전무후무'할 대기록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4경기에서 6골을 폭발했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자신의 한 시즌 리그 최다 14골(2016-2017시즌)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EPL 득점왕까지 노려볼 만하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대표팀 소집이 어려워 보인다. 이는 손흥민의 리그 득점 레이스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시즌만큼은 몇 차례씩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핸디캡' 없이, 최상의 몸 상태로 시즌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현재 EPL 득점 순위에서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손·케, 4골 2도움 '환상의 케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오른쪽)이 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7분 득점한 뒤 해리 케인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37분 골을 추가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유럽 5대리그 100골을 채웠다. /연합뉴스